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7월 24일(금)
(윤력 6월 4일)
Пятница
24 июля 2020г.
№ 29 (11689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7월18일(토)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한국 국제의료보건의료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사호초르스크에서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2-3면에 게재) (배순신 기자 촬영)

<오스트롭나야>, 닭14만 마리 공급

산란계 14만 마리가 전세기편으로 사할린에 공급됐다. 산란계 14만 마리는 '오스트로브나야' 양계장 닭의 마릿수를 교체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로써 기업의 산란계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수요도 충족시킬 전망이다. 올 10월부터 수입한 산란계들에게서 매월 200만 개의 달걀이 공급될 예정이다. 장래 산란계들은 0일에서 90일까지 어린 병아리들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양계장에 자리를 잡았다. 양계장 각 동에는 최대 9만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독일산 새로운 양계 장비가 갖추어졌다.

사할린에 마릿수 복구를 위해 대규모 산란계들을 매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의 자체 생산식품 공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계장은 연간 1억2천만 개의 달걀을 생산해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소비로 끝나고 있다. 이외에도 양계장 측은 육계 생산 확대에 따른 투자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2020년에는 가금류의 개체수를 2배로 늘려야 하는데 이 식품은 사할린 소비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본다. 현재 양계장 6동이 운영되고 있고 4개 동이 추가로 준비 중이며 최신 암호기술이 갖추어진 '빅 더치맨(Big Dutchman)' 장비가 양계 각 동에 설치돼 있다.

새로운 양계장 운영으로 사할린 시장에 4천 톤 이상의 통닭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할린 학생 6명 국가수능시험 러시아어 과목에서 100점 획득

지난 6일과 7일에 학생들이 치른 러시아어 국가수능시험의 결과가 알려진 가운데 이번 학기 졸업생 6명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100점을 받은 학생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졸업생 3명, 흠스크에서 2명, 돌린스크에서 1명이다. 주내 교육기관별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1호 김나지아, 3호 중고등학교, 2호 리체이, 흠스크 '나제즈다' 리체이, 돌린스크 1호 중고등학교 등, 5개 학교의 학생들이 최고 성적을 거뒀다.

지난 6일과 7일에 2433명의 졸업생들이 러시아어 시험을 치렀다. 전통적으로 학교 졸업생들은 국가수능시험 러시아어 과목에서 다른 과목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80점 이상은 510명이고 98점은 받은 학생은 10명이었다. 이번 시험은 졸업생들이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치른, 가장 규모가 큰 시험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어 시험은 3시간50분(210분)에 걸쳐 치러졌다. 시험은 2부분으로 구성되어 27개 문항이 나왔다.

해당 과목의 국가 수능시험 결과들은 대학 입학 시 여러 전공 분야에서 필요로 한다. 대학 입학 시 러시아어 최저 합격 점수는 36점이다.

사할린, '오스트로바' 포럼 참가자들 맞을 준비

사할린주는 <2020오스트로바> 포럼 참가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포럼은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동일 명칭 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전 러시아의 청년들 1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프로그램에는 제2차세계 대전에서 극동지역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청년들에게 사할린주에 대한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국 방면의 100개 이상 활동이 포함돼 있다고 포럼 조직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대회는 추념과 영광의 해의 핵심 행사 중 하나로서 러시아 각 지역에서 수많은 방문객들이 사할린을 찾을 예정이다. 우리는 방문객들에게 사할린에 대한 좋은 추억을 남길 바라며, 가능하면 누군가는 자신의 미래를 사할린과 관계를 맺고 전문적인 성공을 여기서 이루며, 더 나아가 사할린에서 성공을 위한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 물론 포럼은 높은 조직화된 수준에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행사 주최 측은 보안 문제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해법으로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과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우리는 사할린 방문자들을 위한 요구서를 작성했다. 방문자들은 코로나19 검사에 음성 판정 증명서를 지녀야 하며 포럼에 모든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만 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병원균의 확산을 막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 사할린주관리국 올가 푼투소와 국장이 강조했다.

포럼 프로그램은 몇 가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군 역사 부분에서는 전시회가 열리고, '6개 꽃' 기획, 1945년 8월 군사활동의 재구성, 탐구 사업 등을 비롯해 별도의 유익한 행사로는 작문 온라인 경연, TED(강연회) 출전, 공개 수업, 도전 게임, 정돈의 날, 장애물 코스, 산업관광, 미식 축제 등이 있다. 포럼사업 부분에는 6개 코스의 '미래의 섬', '승리의 섬', '평화의 섬', '추억의 섬', '변혁의 섬', '언론의 섬'이 있으며 여기에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 그룹 활동도 계획돼 있다. 또한 저녁 문화 행사와 관광 프로그램도 있다고 주 정부 측이 전했다.

단신

사할린 보건부 신임 장관 연해주에서 부임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의 결정으로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직에 블라디미르 쿠즈네조브를 임명한 가운데 신임 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할린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블라디미르 쿠즈네조브는 태평양 국립 의대 학과를 지도하는 부총장직을 담당했으며 또한 이전에 연해주의 보건부 지도를 포함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두 지휘해왔다. 블라디미르 쿠즈네조브 장관에게는 사할린주에서 의료기관의 현대화와 보건 분야에서 국제 협력 개발, 의료 혜택을 쉽게 접하도록 문제 해결에 따른 기본 과정을 넓혀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7월 20일 보건부 장관으로 부임했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 우수 농사업무 근로자 포상

7월 25일 러시아에서 상업 분야 근로자들의 날을 기념한다. 이 직업 기념일을 맞아 지난 23일(목) 사할린주 정부에서 우수 상업 근로자들에게 축하했다. 사할린주 정부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주 농사업무 인나 파블렌코 장관이 근로자들을 환영하고 30여 명의 우수 근로자들에게 러시아 연방 농업부의 표창장, 주정부와 주 농사업무부의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현재 사할린에서 3359개의 판매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사할린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 2000여 명 넘어

지난 22일(수) 사할린주에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67명으로 총확진자 수는 2000여 명을 넘었다.

이날 새 확진자 중에 35명은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자, 32명은 전 확진자와 접촉한 자였고, 30명은 회복되어 퇴원했다.

이렇게 하여 7월 22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51명, 929명이 회복되어 퇴원, 1122명은 치료 중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자원봉사자 학교' 포럼 개최

사할린 국립대 석유·가스기술대학에서 '자원봉사 학교' 포럼이 열렸다. 해당 포럼은 매년 유즈노사할린스크청년 주도 센터가 개최하고 있다.

행사의 목적은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으며 이들을 위해 미술 자원봉사, 특별행사 자원봉사, 미디어 자원봉사 등 몇 개 방면에서 세미나와 훈련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과 함께 경험이 풍부한 청년주도센터의 자원봉사자들과 초청된 전문가들이 자신의 비법을 공유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배려 뿐

샤흐초르스크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 프로그램 진행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의료진, 봉사자 등 12 명 지방 방문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지난해부터 한국 보건부와 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으로 사할린 현장에서 1세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지난 주말에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을 비롯해 의사, 자원봉사자, 필자 등이 총 12명이 이 프로그램 진행차 샤흐초르스크를 찾았다.

지난 18일(토) 새벽 5시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출발해 일부 비포장 도로를 거쳐 약300km를 달려가 오전 10시 넘어서 샤흐초르스크에 도착하자 샤흐초르스크 한인회 최문갑 회장과 운영위원들이 우리를 마중했다.

건강관리프로그램은 11시에 시작되어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 23명의 주민들이 찾아왔다. 사할린에서 최근에 코로나19감염 상황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는 가운데 프로그램 봉사자들은 현장에 들어온 주민들에게 우선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모두가 마스크 착용 후 행사를 시작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방문 목적을 알리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온

팀을 한 분씩 소개했다.

의사들은 샤흐초르스크 어르신들의 혈압을 측정한 후 공명순 심장병 전문의 겸 내과 의사의 상담을 받고 하바롭스크에서 온 안과 의사들이 진단했다. 의사는 상담 후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작성했다. 의사와 상담 진행 과정은 <건강관리프로그램>담당자인 이 세르게이 주한인회 청년회 회장이 돕고 청년회 위원인 오 블라지미르와 김 아르쥔은 의사 업무를 보좌했다.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담당한 배영희 극동철도대학교 산하 보충전문교육 센터장은 어르신들에게 혈관계 순환을 돕는 운동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올바른 손가락 마사지와 매일 하는 손 운동법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배 자네트 자원봉사자가 돕는 가운데 파라핀 치료기를 이용해 어르신들에게 손을 따뜻하게 하는 파라핀 치료를 해주었다.

의료 진단이 끝나고 만찬이 차려졌다. 차려진 밥상에 감사하는 어르신들은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어르신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강광웅 가수가 한국과 러시아 노래를 불러주었다.



샤흐초르스크 어르신들은 이런 흥겨운 자리가 정말 오래간만이라며 음악에 맞춰 즐거운 춤을 추었다.

샤흐초르스크 1세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이 참 좋았으며 기분이 좋다고 하셨다.

86세의 오문자 할머니는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설명도 잘 해주시고 지금 노래 들으니 마음이 좀 아쁩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의 어머니를 옛날부터 잘 알고 지냈거든요. 나랑 동갑이었고 같은 '오'씨였습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선물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모든 어르신들은 선물로 1

회용 마스크 100장, 다용도 마스크 1장, 물티슈, 그리고 한국산 쌀 1포대(10킬로)씩 받았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고명순 내과 의와 오 블라지미르 주한인회 청년부 회원은 최문갑 샤흐초르스크 한인회장의 인솔로 운신이 불편하거나 건강상 행사장을 찾지 못한 7분의 어르신의 맥을 찾아 선물도 드리고 진단과 의료상담도 해주었다.

어르신들을 살펴본 고명순 내과 의는 «이날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이 올라 약 처방도 해주었습니다. 유감스럽게 평소 어르신들은 질 좋은 약보다 저렴한 가격의 별로 좋지 않은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래서 약 처방을 하고 사할린주한인협회에서 이 약을 어르신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다.

건강관리프로그램 책임자인 이 세르게이 청년회장은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5곳에서 진행하면서 주한인협회에서 그곳 어르신들의 건강을 계속 염려했는데 박순옥 회장님 노력 덕분에 올해부터 나름대로 필요한 약도 챙겨 지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한인회장들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이 세르게이가 덧붙이며 그가 작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현장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챙기지 못하는가?'였다고 한다. 필자는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이번에 공명순 의사를 따라가 샤흐초르스크에 7명의 어르신들 맥을 따라가보았는데 대다수 어르신들은 제대로 가족의 배려를 받는 느낌이었는데 일부는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았다. 마음이 아왔다.

지방에 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은 "프로그

이 모 저 모

사할린 체조 선수들, 국제 온라인 경기에서 메달 획득

전 세계의 150명의 젊은 체조 선수들이 <2020 베네라 컵 2020 > 제2회 국제 온라인 리듬 체조 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사할린의 여자 선수 4명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냈다.

사할린 체조 선수들은 반년간 경기 중단과 전적인 훈련도 없이 두 달간의 훈련으로 자신들의 기량을 거침없이 선보였다. 이번 경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학교 '플라그만'과 주립 자치기관 축구 클럽 '사할린'에서 8세-11세 연령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기술적인 결함과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해도 어린 스포츠 선수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위치를 차지했다. 러시아, 그리스, 이스라엘, 영국, 터키의 참가자들은 프로그램과 연령, 경기장의 여건에 따른 영역에서 경쟁을 치렀다.

경기 중심의 특별상과 1등 상은 사할린의 체조 선수 멜리사 몰라렌코(2012년생)가 차지했고 동갑의 밀라나 니콜라예와(2012년생)는 은메달을 차지, 2009년생인 10세의 알라 리와 아나스타시아 코르슈노와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7월 28일 오는 경기에서 체조 선수들은 우수 순위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Сахалинские гимнастки завоевали медали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нлайн-соревнованиях

150 юных гимнасток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мир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 "Втор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нлайн-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е Venera Cup 2020". Четыре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ки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ьницами золотых, серебряных и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ей.

После полугодового перерыва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и отсутствия полноценных тренировок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вух месяцев сахалинские гимнастки достойно показали свою программу. В турнир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0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 МАУ "СШ "Флагман" и ОГАУ ФК "Сахалин" в возрасте от 8 до 11 лет. Позднее время, технические неполадки, неустойчивое интернет-соединение – все это юные спортсменки преодолели и заняли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в своих программах. Участницы из России, Греции, Израиля, Серби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Турци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категориях, которые зависели от условий зала, возраста и программы.

Первое место и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от главной судьи соревнований достался Мелиссе Муляренко в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2012 год рождения. Ровесница победительницы Милана Николаева взяла серебро. 10-летняя Алла Ли, как и Анастасия Коршунова 2009 года рождения,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ьницами бронзы.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оспаривать призовые места спортсменки будут 28 июля,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минспорт.

코로나19 백신 실험 참가자 둘째 그룹의 혈액에서 항체 발견

항코로나바이러스19 백신 실험 참가자 둘째 그룹의 결과가 전망을 보여준 가운데 이들 모두에게서 새로운 감염에 대한 항체들이 형성되었다. 이에 부르젠코 군 본부 임상병원의 실험에 참여한 지원자들이 참가했다고 군의관 세르게이 보리세비치 대령의 말을 인용해 타스 통신이 전했다.

소식에 따르면 백신의 안전성과 인체에 양호한 내성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7월 20일에는 병원에 남은 20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퇴원시킨 가운데 학자들은 획득한 결과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얻은 결과들과 획득한 실험 자료들의 표본을 근거로 러시아에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전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실험은 7월 말까지 끝나야 한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가한 그룹이 세체놉스키 대학에서 지난주에 집으로 돌아갔다. 모든 실험 참가자들이 약물을 잘 견뎌낸 가운데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필요한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개발 시 새로운 약제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플랫폼 작성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들이는 데 보통 20년이 걸린다. 학자들이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한 항에볼라 3개 백신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У второй группы испытуемых вакцины от COVID-19 обнаружили антитела в крови

Результаты второй группы испытуемых вакцины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оказались многообещающими – у всех выявили антитела к новой инфекции. Добровольцы участвовали в эксперименте на базе главного военного клинического госпиталя имени Бурденко, сообщает ТАСС со ссылкой на полковника медицинской

службы Сергея Борисевич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помимо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в виде сформировавшихся антител к коронавирусу, подтвердилась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хорошая переносимость вакцины человеком. 20 июля из госпиталя выписали оставшихся 20 добровольцев. Далее ученые тщательно проанализируют полученные результаты и на основе полученных данных препарат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уют в России. В целом испытания вакцины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должны закончиться до конца июля,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Сергей Шойгу.

Первых испытателей прививки против COVID-19 выписали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из Сечен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се добровольцы хорошо перенесли препарат, а анализы показали наличие необходимых антител к коронавирусу.

При создании вакцины больше всего времени ушло на разработку платформы, котора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снову для новых препаратов. На нее потратили 20 лет. С ее помощью ученые создали три вакцины против Эболы, которые также проходили испытания на людях.

영국의 학자들, 코로나19, 6개 유형으로 나눴다

영국 런던 왕립대학의 전문 병리학자들은 코로나19의 각기 증상을 다른 6개의 유형으로 분리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에게서 다양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스카이 뉴스'를 인용해 러시아 '타스'통신사가 전했다.

학자들의 연구 진행을 위해 미국과 영국의 확진자와 코로나19 증상 연구 휴대전화 앱의 도움으로 5일간 수집한 1600명의 주민들 질환의 증상에 대한 정보가 활용되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의 증상은 3가지 – 기침, 고열, 후각 상실 – 라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그들에게 다른 증상이 추가된다면 그에 따라 코로나19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침입하는지를 밝힐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선도적 조치를 실행하여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한다. 첫 두 가지 증상은 코로나19와 연관돼 독감 증상과 고열 및 열 없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기침은 하지 않지만 설사와 발열, 식욕저하 등이 동반되는 경우로 세 가지 형태는 경증(가벼운 증상)이다.

(8면에 계속)

램이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도 5곳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미 3 곳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두 곳이 남았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청년부 회원들에게 감사함과 자부심을 감출 수가 없네요. 이들이 두말없이 서로 도우며 자기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주 보기가 아주 좋았어요. 이번에 4명의 젊은 봉사자들의 훌륭한 태도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다음날도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부터 우글레고르스크시를 찾아 이미 5월에 준비된 식품선물세트 25개를 전해드렸다. 주한인협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500여 선물세트를 마련해 5월 말부터 사할린 주내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나누었는데 우글레고르스크시는 선물세트 나눔의 마지막 도시가 되었다.

선물을 받은 한 할머니는 박순옥 회장을 끌어안고는 "나는 5월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왜 그렇게 늦게 와. 보고싶었다."라면서 너무 반가워 하시며 눈물까지 흘리셨다.

이에 박순옥 회장은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다시 꼭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몸이 약해져가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이웃과 가족의 배려와 관심뿐이다.

이번 샤호초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방문은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이 함께했다. 교육원장은 샤호초르스크 어르신들과의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봉사자들과 함께 우글레고르스크 어르신들의 각 댁을 찾아가기도 했다.

우리 방문팀은 19일(일) 오후 7시 넘어서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쿨릭 러 대사 "사할린 LNG, 한국 수출 확대 기대...조선·차 협력 희망"

"러시아 신(新)동방정책·韓 신북방정책 바탕으로 극동지역서 새 경제협력 기회 찾자"

안드레이 쿨릭(Andrey Borisovich Kulik) 주한 러시아 대사가 2024년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 한국 수출량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쿨릭 대사를 초청해 '한·러 경제협력 30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Webinar,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쿨릭 대사는 "양국 수교 30년 동안 두 나라 정상 30회 이상 만날 정도로 양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우호적 관계 발전 배경에 양국 기업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러 관계는 무역·경제·투자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바탕으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기회를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이어 쿨릭 대사는 "러시아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80%가 석유 및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인 만큼 에너지 산업은 양국의 우선적인 협력 분야"라고 강조하며 "러시아는 현재 사할린-2에서 생산된 액화천연가스

(LNG) 150만t을 매년 한국에 수출하고 있고, 2024년 사할린-2 프로젝트의 3단계가 완료되면 약 500만t의 생산용량이 더 늘어나 한국으로의 LNG 공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와 조선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 추진을 희망한다"며 "연해주 내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 구역(ASEZ) 산업협력단지나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쿨릭 대사는 "한국은 교통 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라며 "러시아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를 이용한 화물 운송 사업은 한국 해운업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 야쿠르트 등 러시아 투자사례를 예로 들며 많은 한국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해 주기를 당부했다.

쿨릭 대사는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후 2011년에 중국과 한국, 북한, 몽골 등 업무를 총괄하는 제1아시아국장으로 임명됐다. 2018년 8월부터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대사로 임명돼 약 2년째 대사직을 맡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이렇게 빨리 자랄 줄이야

아이들이 어릴 때는 빨리 키워서 같이 운동을 하고 싶었다. 야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산에 함께 오르는 상상을 하며 흐뭇해했다. 지금은 아이들이 되도록 천천히 자라면 좋겠다. 내가 나이 드는 게 서글프기도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반짝거리는 아이들이 너무도 예쁘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든 다 아는 형을 부러워했다. 평생 형이 될 수 없는 자기의 운명도 모르고 언젠가는 형이 될 거라는 희망을 홀로 가졌다. 다섯 살이 되는 생일날 혼자서 좋아 어쩔 줄 모르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이제 이 년만 지나면 자기도 형으로 변신한다는 것이다. 일곱 살이던 큰 아이가 그 희망을 단번에 깨뜨렸다.

"아니거든! 이 년 뒤에도 너는 너거든! 그리고 이 년 뒤에 나는 아홉 살이거든!"

"아닌데? 아닌데?"

둘째가 울먹이며 나를 바라봤지만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삼십년 뒤에는 아빠로 변신할 거라고 믿는 아이의 꿈을 지켜줄 수 없어 미안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아이들은 사이가 좋았다. 둘째가 형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자 첫째는 한참 고민하다가 그 청혼을 받아들였다. "이 결혼, 나는 반말세!" 라고 외치고 싶었는데 사랑의 장애물은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신부 드레스를 누가 입느냐로 돌이 다투기 시작한 것이다. 결혼은 양보와 인내라는 걸 아이들은 몰랐다. 서로 여자옷을 입지 않겠다며 팽팽하게 맞선 끝에 결국 파혼이 되었다.

꽤 오래 전에 결혼이 깨졌지만 두 아이는 여전히 한 방을 쓰며 킁킁댄다. 그런데 한 달 뒤면 큰 애가 중학교에 들어간다.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진화하여 방을 따로 쓸 때가 된 것이다. 둘째는 여전히 형을 좋아하지만 첫째는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쓸쓸할 둘째가 딱하기도 하고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아쉽기도 하다. 그래도 여전히 인생의 가장 좋은 부분을 살고 있다고 여기는 이유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부모는 젊고 집안에는 큰 걱정이 없어서다. 이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에 더 값진 나날이다.

동화를 써서 좋은 점이 여기 있다. 몸이 늙어도 마음은 피터 팬이라는 것.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내 아이들이 죽순처럼 쑥쑥 자라버려도 걱정 없다. 나와 놀아줄 새로운 아이들이 세상 어디선가 새싹처럼 태어나고 있을 테니.

광주에서 김남중



새고려신문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 수 있을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7루블리 15코페이가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ервый спутник связи для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успешно запущен

Спутник связи Anasis-II,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й для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успешно запущен 20 июля в 17:30 по времени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США с космодрома на мысе Канаверал в штате Флорида с помощью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Falcon 9 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пании SpaceX. После отделения от ракеты на высоте около 630 км над экватором спутник успешно связался с косм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во французском городе Тулуза. Ожидается, что через две недели он достигнет заданной орбиты в 36 тыс. км. Аппарат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защищённой связи, устойчивой к помехам. Anasis-II заменит спутник Anasis-I, используемый как в гражданских, так и в военных целях, —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агентстве обор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анее ожидалось, что старт состоится 14 июля, однако компания SpaceX отложила его дл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роверки второй ступени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Сотрудник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умер в России от COVID-19

Сотрудник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инфицированный COVID-19, умер 20 июля в больнице города Омска на юго-западе Сибир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генеральном консульстве РК в Иркутске, компания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модернизации нефте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завода, принадлежащего российскому концерну «Газпром». Сотрудник компании находился на лечении в больнице с 10 июля. Вирус COVID-19 подтверждён ещё у семи сотрудников компании, двое из них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ны.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заключила контракт с «Газпромом» в 2018 году, и в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постоянно участвуют около 50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трудников. Компания планирует оставить в России мин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отрудников, а остальных вместе с семьями эвакуировать на родину.

В РК открылся фестиваль видеоигр

В среду, 22 июля, в РК открылся фестиваль видеоигр Indiecraft K-Game Festival 2020.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мэрия города Соннам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бизнеса в городе Соннам, а также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мобильных игр.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оказали игровые и IT-компании,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Nexon, NCSoft и Unity.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четвёртый год подряд. В этот раз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фестиваля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с применением технологий виртуальной реальности. Всего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шесть виртуальных локаций, включая зону лучших игр, игровых сообществ, компьютерных и мобильных игр, а также международную зону. В ходе фестиваля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60 видеоигр, 40 из которых были созданы корейскими разработчикам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длится в течение пяти дней с 22 по 26 июля.

KBS World

Диаспора

В Шахтерске провели программу «Здоровь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должает претворять в жизнь проект «Здоровье», которы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Фонд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пе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мощи пожилым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р.) «Здоровье»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диагностику и консультацию врачей, профилактику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и раздачу риса. Осенью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этой программе участвовали корейцы из 5-ти городов и поселени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решено продолжить программ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ОСК уже успели побывать в г. Холмске, селах Правда и Чехов (Холмский район), а 18 июля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й десант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высадился в Шахтерске.

5 часов в дороге, местами грунтовой, и уже после 10 часов утра 12 человек, среди которых медики, волонте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ОСК,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Ли Бен Иль,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дготовк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ое началось в 11 утра.

В Шахтерск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оживает 3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23 из них прибыли на место встречи, где их ждал осмотр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врачей — терапевта и офтальмологов, программа профилактики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отв. Анжела Пе). После этого пожилые люди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за празднично накрытый стол, певец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етр Кан от души исполнил для них песни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Зажигательные ритмы не оставили людей в покое, они пустились в пляс, невзирая на возраст, большинству из них было далеко за 75-80 лет. Они не жалели слов благодарностей для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рачей и волонтеров за проведение так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олучение компетентн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медиков, за чуткое радужное отношение, проявленное внимание.

Особо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слаженную четкую работу волонтерской команды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олодежного отдела РООСК во главе с Сергеем Ли (Владимир О, Артем Ким, Жаннета Пе). Так приятно, что молодые люди участвуют в такой программе,



искренне заботятся о пожилых людях.

Их волонтерская работа была продолжена и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в конце мая РООСК подготовило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более 500 продуктовых набор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доставлены волонтерами адресно во все районы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Углегорск стал последним из них. В этот день волонтеры посетили каждый дом и раздали 25 продуктовых наборов. Пожилые люди были очень обрадованы вниманием со стороны РООСК, благодарили, некоторые даже прослезились, что люди приехали специально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грамма «Здоровье» ждет жителей еще дву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Когда это произойдет еще точно неизвестно. Все зависит от ситуаци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Фото и текст Виктории Бя)

Певица выпустила альбом в память о жертвах COVID-19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опрано, обладательница награды Grammy Чжо Су Ми выпустила новый альбом в Италии, который она посвятила жертвам COVID-19.

Альбом под названием «Жизнь — это чудо» был выпущен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итальянскими пианистом Джованни Аллеви и гитаристом Федерико Пачиотти.

Альбом выпущен в целях поддержк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нда Умберто Веронеси в борьбе против COVID-19 и памяти тех, кто потерял жизни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Все сборы от альбома будут пожертвованы фонду.

В интервью итальянской газете Il Messaggero Чжо сказала, что она сама потеряла друга во время эпидемии.

«В Италии я видела людей, выходящих на балконы и поющих в знак солидарности», — сказала она.



— «Своим творчеством я хотела послать частицу надежды».

ИА РУСКО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87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ОЗ: Более 1.100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протестированы на COVID-19

Более 1.100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прошли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COVID-19, и у всех получен отрица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интервью радиостанции «Свободная Аз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ОЗ) в Пхеньяне Эдвин Сальвадор. Он сказал, ч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610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находятся на карантине, и все они являются работниками порта Нампо в Жёлтом море и свобод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Дандун-Синийчжу в районе границы с Китаем.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ОЗ также сообщил,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карантинные органы строго контролируют соблюдение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торыми в местах скопления людей масочный режим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а собрания и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запрещены.

Будущий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призывает к гуманитар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КНДР

Сеулу следует продолжать межкорейское гуманита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езависимо от реше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о вторник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Сеуле кандидат на пост министр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Ли Ин Ён.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наряду с возобновлением зашедших в тупик межкорей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становлению взаимного доверия,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обеих Корей. Что кас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оездок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на Север в качестве способа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без нарушения санкций, то они могут быть доступн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жилым людям, которые хотят встретиться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Такие встречи могут быть организованы как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так и в пограничном пункте Пханмунчжом,- отметил Ли Ин Ён. Парламентские слушания по его утверждению в должности министра запланированы на 23 июля. Они являются формальной процедурой, поскольку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может лишь выразить свои взгляды, не имея полномочий отклонить кандидатуру.

17 августа в РК объявлен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выходной ден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ло во вторник решение объявить понедельник, 17 август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выходным днём. Это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отдохнуть три дня подряд – с субботы 15 августа, когда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по понедельник, 17 августа, одновременно стимулируя внутреннее потребление. Выступая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Мун Чжэ И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трёхдневный отдых даст народу страны передышку в напряжённой борьбе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Принимая решение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дне отдых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чло,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выходных дней меньше, чем обычно, поскольку ряд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аздников, которые не подпадают под действие закона о переносе праздничных дней, выпадают на субботу или воскресенье.

РК – на шестом месте в рейтинге военной мощи стран мира

Южная Корея заняла шест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военной мощи стран мира (Global Firepower), поднявшись на одну ступен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Рейтинг учитывает 138 стран мира, сравнивая их по более чем 50 различным показателям. Это, в частности, численность армии, количество танков, кораблей, самолётов и другой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оборонные расходы, транспортная система, доступ к нефтепродуктам и прочие факторы, которые влияют на боеспособность армии. Налич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рейтинге не учитывается, а все данные берутся из открытых источников. КНДР заняла 25-е место, опустившись на семь ступене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в рейтинге США, на втором Россия, на третьем Китай.

Рост цен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 июне – максимальный за два года

Индекс цен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а все товары и услуги составил в июне 102,52 пункта, что на 0,5%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месяцем. Как сообщили во вторник в Банке Кореи, это максимальный рост с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Он стал возможен благодар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мировых цен на нефть, что подтолкнуло рост цен на промышленные товары. Цены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служат ключевым барометром будущей инфляции, которая остаётся на крайне низком уровне с тех пор, как 20 января начали поступать сообщения о первых случаях COVID-19. Оставаясь дома и избегая скоплений людей, жители страны резко сократили расходы. Индекс цен н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снизился в июне на 1,6%, а индекс для сектора услуг вырос на 0,3%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месяцем.

(RKI)

В Сеуле прошл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 Сеуле прошл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и круглый стол на тему: "Посткоронавирусная эпоха: влияние пандемии и ее последствия на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деловой совет, Институт евразийск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реи и Торгов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К).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с докладами выступ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литических, деловых, научных, экспертных и журналистских кругов России и Кореи, где обрисовали текущее положение в российск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деловых связях, влияние на них коронавируса, а также то, как стоит развивать дву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победы над COVID-19.

После докладов прошло обсуждение поднятых тем, где участники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риурочено к 30-летию юбиле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в этом году. 2020 и 2021 гг. также объявлены "годами взаимных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Южнокорейцы поддерживают идею новой встречи Мун Чжэ Ина и Ким Чен Ына

Почти две трети жителей Южной Кореи выступают за проведение очередного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в целях снижения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Сеулом и Пхеньяном. Вместе с тем, далеко не все южане поддерживают мягкий подход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Таковы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который был проведен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ей Research and Research по заказу местной газеты "Соул синмун".

По информации упомянутого издания опрос был проведен 14-15 июля среди 1000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граждан Южной Кореи. В ход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ыяснялась точка зрения корейцев в отношении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огласно обнародованным данным, почти две трети опрошенных (64,8 процента) поддержали идею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еще одной личной встречи между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Мун Чжэ Ином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Против высказались 27,2 процента респондентов. По мнению сторонников этой идеи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саммит поможет снижению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Напомним,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еулом и Пхеньяном пережили полосу кризиса и обострения, после чего вошли в стадию затишья. "Медовый месяц" ж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ишелся на 2018 г., когда Мун и Ким встретились три раза - в апреле, мае и сентябре. Как видно, южнокорейцы полагают, что личное общение лидеров поможет им урегулировать разногласия и устранить недопонимание.

Вместе с тем, данный подход, как выясняется,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 о прогрессе страны в борьбе с COVID-19

Южная Корея вновь стала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обнадеживающие показатели по части борьбы с COVID-19. 20 июля число "собственных" новых зараженны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составило лишь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за сутки.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Мун Чжэ Ин заявил, что страна "побеждает коронавирус".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которую в понедельник огласили власти Р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олночь 20 июл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всего 26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При этом выздоровели 19 пациентов, умер 1 челове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за все время составляет теперь 13 771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12 572 выздоровели и 296 умерли.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больных - 903 человека. Доля выздоровевших составляет 91,29 процента, летальность – 2,15 процента.

Как подчеркнули в Сеуле, есть данные,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им с оптимизмом смотреть в будущее. Из этих 26 заболевших собственно "корейских" случаев – лишь четыре, это самый низкий показатель за последние почти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месяца. Остальные 22 случая являются "импортными", то есть были привезены въезжающими в Корею иностранцами, либо корейцами, которые возвращаются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За прошедшие сутки всего восемь стран стали "поставщикам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РК - Филиппины (9 человек), Пакистан (3), США, Мексика, Казахстан, Ирак (каждый по 2), Киргизия и Индонезия (по 1).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от уже который день количество ввозных случаев заметно превышает численность но-

вых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которые были выявлен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В целом же Корея вновь вернулась к показателям трехмесячной давности, когда к концу апреля цифры были также весьма обнадеживающими, что позволило властям страны ослабить меры по социальному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ю. Правда, затем в начале мая последовали несколько всплесков, когда число заболевших временами составляло по 50-70 и более человек в сутки. С последствиями той "второй волны" Корея борется до сих пор и, похоже, смогла достигнуть перелома. В последние недели налицо явная тенденция на сокращение числа новых случаев, при это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обственно корейских.

Все это позволило заявить президенту РК Мун Чжэ Ину о том, что страна "побеждает коронавирус". Он написал об этом в своем аккаунте в одной из соцсетей, комментируя тот факт, что 20 июля исполнилось ровно полгода с момента, ког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был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первый зараженный COVID-19. Мун Чжэ Ин поблагодарил за самоотверженный труд медиков,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а также сотрудников тех структур, кто занимается борьбой с инфекцией.

Отметим, что с 20 июл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Кореи возобновили работу музеи, галереи искусства и библиотеки. До сих пор они были закрыты для посещения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сещение теперь возможно, но пока численность гостей будет контролироваться,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соблюдения безопасной дистанц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В минздра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ов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По реш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эту должность назначен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Новый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ибыл на Сахалин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являлся проректором, заведующим кафедрой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Еще ранее возглавлял различ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а также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я краев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у Кузнецову предстоит продолжить взятый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курс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медучреждений,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шение вопросов доступности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К исполн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нов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иступил с 20 июля.

Семейное положение – женат, воспитывает сы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строят, ремонтируют и оснащают школьные пищеблоки

Наиболее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развернулись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Так,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модернизируют пищеблоки школ №16, 6 и 26, а также гимназии №1.

Например,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 16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ентябре откроют пристройку столовой на 160 мест.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осмотрела, как проходит завершение работ на данном объекте. Введение нового здания школьного пищеблока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учащимся более качественное, разнообразное и полезное питание. Готовность объекта сегодня составляет 90%.

– Школу построили в далеком 1954 году. Изначально в проекте не было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толовой. Сегодня там обучается 800 детей, питание для ребят привозили, а обеденный зал находился в приспособленном помещени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теперь все блюда для детей будут готовить на месте и подавать сразу после их приготовле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школы Елена Потапова.

Новый пищеблок буде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всем санитарным правилам и нормам. В проекте предусмотрели отдельные цеха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пищи и хранения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На кухне установили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редусмотрен большой обеденный зал.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держит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вопросы организации школьного питания.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пищеблоков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нынешним летом направлено почти 1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Это средства областного и местных бюджетов.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бесплатное горячее питание продолжат получать почти 60% школьник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На эти цели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предусмотрели более 60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на четверть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Об обязательности введения бесплатного горячего питания в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ах в Послан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заяви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реализовал программу задолго до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се учащиеся с 1 по 4 классы обеспечены горячими обедами с 2008 года

– Бесплатное питание в наших школах получают и учащиеся 5-11 классов из сем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социально опасном положении или малоимущих, сем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 С 2017 год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бесплатное горячее питание получают учащиеся, в семьях которых один родитель воспитывает двоих и более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детей.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м школьника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Для них предусмотрено двухразовое питание, а если ребята обучаются на дому, родителям выплачивается компенсация.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школьного пит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тоянно расширяются. С 2015 года в рацион питания учащихся включено молоко. С 2020 года бесплатные обеды стали получать все ребята из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х достатка.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все социальные гарантии будут сохранены.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качественного горячего питания,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в регионе ведется поэтапн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пищеблоков и создается необходим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Ежегодно для контроля за качеством и расширением ассортимента блюд в столов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и школ проводят анкетирование учащихся и родителей, а также создают дегустационные комисс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ее 2,5 тысяч учителей получат надбавку за класс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Новая федеральная ежемесячная доплата для педагогов вводи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1 сентября – начала очередн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Ее размер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будет выше, чем в большинстве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вместо 5 тысяч рублей с учетом северных надбавок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составит от 9,5 до 14 тысяч рублей. Необходимая сумма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уже доведена региону, на доплаты выделено свыше 15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Класс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выполняет целый ряд функций, которые напрямую не связаны с преподаванием учебных дисциплин, – отмети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н создает условия для саморазвития и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личности ребенка, его успешной социализации в обществе, организует и проводи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внекласс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роме этого, в его обязанность входит общение с семьями своих учеников и налаживание связи с учителями-предметниками, это серьезный объем работы.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та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ощр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Как сообщалось ранее, в своем ежегодном Послании к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теперь в каждом регионе страны доплата классным руководителям будет начисляться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Кроме того,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обязаны сохранить и те выплаты, которые полагались педагогам до введ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истемой оплаты труда предусмотрена доплата педагогическим работникам за класс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в размере до 31% от оклад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наполняемости класса.

Доплата за класс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предусмотрена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При максимальной наполняемости класса ее размер в городской школе составляет свыше 8 тысяч рублей, в сельской – более 10 тысяч. С учетом надбавок и районного коэффициента, в северных районах она больше на 2 тысячи рублей, а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на 3 тысячи рублей. В начале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с учетом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поощрения ежемесячная сумма надбавки составит от 17,5 до 28 тысяч рубле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ста работы класс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готовится к приему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ОстроVa-2020»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асштаба примут около 1000 молодых людей. В программе – более 100 активностей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призванных повыси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ля молодежи и рассказать о ро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обытиях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очередном заседании оргкомитета форума.

– Слет – одно из ключе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Года памяти и славы. К нам прид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гостей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Мы хотим, чтобы у них остались хорошие впечатления о нашем острове, возможно кто-то из них захочет связать с Сахалином свою дальнейшую судьбу, сделать здес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карьеру, тем более, что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этого много. Конечно, необходимо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форум прошел на высоком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м уровне,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уделили самое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этом ключе они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с органам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 Мы разработали предложения для прибывающих в регион. Они должны обязательно иметь отрицательный тест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необходимо соблюдать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и социальную дистанцию. Нам надо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е только ковидной, но и любой другой инфекции, – отметила Ольга Фунтусо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лава проектного офис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слета Вадим Кокорев отметил, что форум вызывае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живущих на материке.

– Конкурс на участие в форум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 более 7 человек на место.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ребята с материка в будущем, когда вернутся домой, станут продвигать Сахалин, потом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иедут туристами, а в перспективе выберут остров в качестве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Программа форума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несколько направлений. В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блок войдут выставки, проект «6 мысов», реконструкция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поисковые работы. К разделу полез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тнесены онлайн-конкурс сочинений, TED выступления, открытые уроки, квесты, субботник, полоса препятствий, промышленные туры, гастротур.

В блоке форум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шесть треков: «Острова Будущего», «Острова Победы», «Острова Мира», «Острова Впечатлений», «Острова Перемен», «Острова Медиа». Здесь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ыступления экспертов, дискуссии, групповая работа. В программе также вечерни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экскурсии.

Сахалин проведет нефтегазовую конференцию в особом формат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сенью традиционно примет крупнейшее отрасле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24-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30 сентября по 1 октября.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уководители ведущих мировых нефтегазовых и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сервисных и подря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уч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сего – более 600 экспертов.

Из-за пандемии нынешня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йдет с соблюдением повыше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в

особом формате.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ней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как прибывшие на остров делегаты, так и специалисты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Их ждут 4 тематических круглых стола «Спроси эксперта», более 120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встреч «один на один» с операторами проектов, дебаты и панельные дискуссии по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Ключевой посыл мероприятия – особенности работы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в условиях мирового кризиса. Деловая программа обширна: состоится обсуждение новых тенденций и накопленного опыта в реализации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вопросов газификации и развития сети газомотор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Сахалине и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т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м и экономическим факторам конкурентной борьбы за газовые рынк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АТР), а также перспективам производств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хранения и потребления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Эксперты расскажут о роли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в укреплении и развити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рупнейшие игроки рынка углеводородов поделятся опытом оптимизации своих структур и проектов в условиях кризис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рассмотрят вопросы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частности, речь пойдет об одном из самых перспекти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боты на Сахалине – создании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для локал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сервиса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Также в числе вопросов – перспективы введения в строй газопровода «Сила Сибири-2», глобальны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переход и декарбонизация, а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ые нефтегазовым компаниям антикризисные финансовые, регуляторные и налоговые меры.

Кроме того, деловую программу будет сопровождать выставочная экспозиция предприятий, чь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осредоточена в сфере добычи,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и переработки углеводородов.

Отметим, во время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йдет электрон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С его помощью составят актуальную картину того, как отрасль видит происходящие сегодня процессы, тенденции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обобщат в рамках презентации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баромет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обсудили с жителя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екты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микрорайонов города

Все желающие 18 июля смогли подробнее узнать о концепциях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4, 7 и 8 микрорайонов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пециальную площадку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ика выходного дня «Твой новый Южный».

Объем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редставили на различных стендах и экранах. Кроме того, любой горожанин мог задать вопросы профильн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мы привлекаем к обсуждению будущего обли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жителей. Они не только предлагают свои варианты, но и вовлекают в процесс своих близк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друзей. Мы слышим раз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рой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Но в обсуждении и рождается истина. Жизнь не стоит на месте, ветхие здания надо сносить и каждый раз задумываться, а каким должен быть новый облик того или иного микрорайона – неправильно. Надо видеть облик всего город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м, различные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трех микрорайон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азработали 5 компаний. Авторы проектов – опыт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России, Нидерландов и Японии,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яют два столичных архитектурных бюро «Остоженка» и UNK PROJECT, а такж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ую архитектурную компанию» (Хабаровск) и OFERTA (Владивосток).

Одни разработчики предлагают создание дворов без машин, с озеленением, прогулочными, спортивными и игровыми зонами. Другие – продвигают идею организации пешего променад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через микрорайоны. Но ключевая задача всех вариантов – обновить ветхий и признанный сейсмически небезопасным жилой фонд, переселить жителей в новые дома, построенные в их же микрорайоне, и в целом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ую городскую среду с учетом совреме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 Как автомобилист, предлагаю обязательно учесть в будущем облике микрорайонов наличие парковок. Мне ближе вариант многоуровневых. Заставленные машинами дворы – это большая проблема. А вообще, здорово, что у нас спросили, как бы хотелось нам, – отметил житель 8 микрорайона Дмитрий Гриненко.

В различ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сейчас проводят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встречи, на которые приглашаю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а улице материалы раздают десятки волонтеров.

– Мы впервые проводим такое широкое обсуждение с горожанами. Да, публичные слушания проходят всегда, но на них, как правило, людей приходит не много. Здесь мы видим огромный интерес со стороны горожан. И мы будем разрабатывать проект планировки с учетом критики и предложений жителей. В дальнейшем растиражируем этот опыт и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проектов по другим микрорайонам, в том числе, новым, – рассказа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Голосование по проектам обновления 4,7 и 8 микрорайонов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в сентябре, в День гор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넷째 증상은 피로감과 다섯째 증상은 근육통과 의식의 혼미다. 여섯째는 식욕부진, 설사, 복부 통증, 호흡곤란을 동반하고 있다. 또한 가슴과 근육 통증, 피로감과 의식 혼미도 있다. 이런 유형의 증상은 더욱 심각해지며 이런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환자가 입원을 해야 한다.

Ученые из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ыделили шесть форм коронавируса COVID-19

Эксперты-инфекционисты Королевского колледжа Лондона выделили шесть форм COVID-19,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симптомами. По ним исследователи могут оценить риск развития разного рода осложнений у пациента. Об этом со ссылкой на Sky News сообщает ТАСС.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учены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информацией о симптомах болезни у 1 600 жителей СШ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которые пять дней собирали с помощью заболевших и собственного мобиль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COVID Symptom Study.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есть три основных симптома коронавируса — кашель, высокая температура и потеря обоняния. Но если к ним прибавляются другие симптомы, то по ним можно выяснить, как дальше будет протекать COVID-19 у человека. Такие данные помогут действовать на опережение и не допустить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К первым двум формам болезни относится коронавирус с симптомами гриппа, с температурой или без нее. Далее следует COVID-19 без кашля, но с диареей, температурой и потерей аппетита. Все три формы являются легкими.

Четвертая форма подразумевает усталость, а пятая — боль в мышцах и спутанность сознания. Шестая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отсутствием аппетита, диареей, болями в области живота и проблемами с дыханием.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уют боли в груди и мышцах, усталость и спутанность сознания. Эти формы являются более тяжелыми, поэтому при их выявлении почти всем пациентам требуется госпитализация.

사할린 공상소설 작가들에게 흑해 여행권 획득 기회 제공

전국 아마추어 작가들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러시아 연방 도서의 해' 포털사이트에 공지된 <독자들의 이야기> 경연에 사할린 주민들의 참가를 기다린다. 올해는 레이 브래드버리와 아이제크 아시모프 100주년을 맞아 공상과학소설 작가들이 최우수상을 놓고 경쟁한다. 주최 측은 경연 주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현재 팬데믹의 상황이 현실을 바꾸어 놓아 주제를 찾을 필요없이 단순히 세상을 관찰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한다. 주최 측은 절박한 격리 시기의 경향을 주제로 < 화씨 온도계에 따른 여름의 사랑 >이라고 고안해 냈다.

경연 최우수상은 카프카스 흑해 연안으로 떠나는 2020

년-2021년 가을과 겨울철에 일주일간 2인 여행권이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준비가 된 공상적인 주제가 머릿속에 꿈틀댄다면 경연 참가를 위해 7월6일부터 8월15일까지 이메일 주소 konkurs@godliterary.ru로 제출해야 함.

Сахалинским писателям-фантастам предлагают выиграть поездку на Черное море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Читательского рассказа, объявленного порталом ГодЛитературы.РФ, который отбирает лучшие труды писателей-любителей со всей страны. В этом году по случаю столетия Рея Брэдбери и Айзека Азимова за главный приз поборются писатели-фантасты.

В этот раз думать над темой соревнования организаторам не пришлось. Сегодняшня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так изменила реальность, что искать сюжеты теперь не требуется — можно просто наблюдать за миром.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шли на поводу у актуальных посткарантинных тенденций и придумали название «Лето Любви... по Фаренгейту».

Главный приз конкурса — путевка на Черноморское побережье Кавказа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на двоих в осенне-зимний сезон 2020-2021 года.

Если в вашей голове живет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сюжет, которым вы готовы поделиться,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нужно отослать его на электронный адрес konkurs@godliterary.ru с 6 июля по 15 август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Реклама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г.(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